

덴도 오다번(織田藩)

덴도 오다씨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차남 노부카쓰(信雄)를 번조(藩祖)로 하고 있습니다. 노부나가의 사후, 노부카쓰의 넷째 아들 노부요시(信良)에 의해 고즈케국(上野国) 오바타 번(小幡藩)(현 군마현 간라마치 오바타)이 창시되었지만, 메이와(明和) 4년(1767) 존황사상(尊皇思想)을 주창한 야마가타 다이니(山県大弐)의 '메이와 사건'과 관련하여 오다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즈케국 오바타에서 데와국 다카하타(현 야마가타현 다카하타마치)로 이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다가(織田家) 2만석의 영지 대부분이 덴도를 중심으로 하는 무라야마(村山)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덴포(天保) 2년(1831), 번주가 다카하타에서 덴도로 입부하여 덴도 오다 번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덴도 오다 번은 메이지 4년(1871) 폐번치현(廢藩置縣)까지 약 40년간을 덴도의 성주로서 통치했습니다.